

## 매산 홍직필의 外史氏 역할과 인물 군상의 기록\*

— 傳狀과 碑誌를 중심으로 —

신 영 주\*\*

<目次>

- I. 머리말
- II. 간행본 및 필사본 소재 인물 군상 기록의 현황
- III. 外史氏 역할의 자임과 立傳 의식에 관한 분석
- IV. 맺음말

<국문 초록>

梅山 洪直弼은 많은 수량의 傳狀과 碑誌를 창작하였다. 본고는 이들 작품의 양상을 살핀 후에, 그 의의를 검토하였다. 한 시대를 살아가는 선비로서, 그는 당대의 세상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응하여, 이로써 현실을 바르게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매산이 살고 있던 19세기 전반은 시대의 상황이 다른 시대와는 같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말세를 치유하는 처방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고 절실한 과제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이런 시기에 忠, 孝, 貞烈을 알리는 것이 말세를 치료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忠孝와 貞烈을 실행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소개하여 세상에 알리기 위해 노력하였다. 비록 이들이 지위가 낮은 사람이라고 해도, 그는 항상 이들에게 傳狀과 碑誌를 기쁘게 작성해서 주었다. 그는 세상에 이들의 드러나지 않은 아름다운

\* 이 논문은 2015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성신여자대학교 부교수 / syj@sungshin.ac.kr

덕행[潛德]과 감추어진 훌륭한 행실[幽光]을 알려서, 이를 세상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고자 하였다. 이로 인해, 그는 많은 수량의 비지와 전장을 남길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 매산이 작성한 이런 기록들을 검토하여 창작 의도를 추적하였다. 특히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귀감으로 삼을 수 있는 인물들을 발굴하여 알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이를 통해, 19세기 전반 조선의 문학과 사회 현상을 이해하는 데에 이바지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梅山 洪直弼, 傳狀類 散文, 碑誌類 散文, 忠孝, 貞烈

## I. 머리말

梅山 洪直弼(1776~1852)은 많은 분량의 傳狀과 碑誌를 남겼다. 간행본 『매산집』에 수록되어 있는 편수로 국한하여 헤아려보면, 碑誌類에 해당하는 작품이 154편이고 傳狀類에 해당하는 작품이 53편이다. 여기에 간행본을 만드는 과정에서 산삭된 작품까지 합산하면 그 편수가 두 배에 이른다. 필사본 『매산집』에 실린 편수로 헤아려보면, 비지류에 해당하는 작품이 288편이고 전장류에 해당하는 작품이 90편이다. 이 두 가지를 합산하면, 비지류가 299편에 이르고 전장류가 97편에 이른다. 본고는 이들 작품의 존재 양상을 살피고 그 의의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매산은 한 시대를 담당하는 士로서 時事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자신의 방식으로 노력한 학자이다. 그가 직면한 19세기 전반기에는 여느 때의 상황과는 다르게 시급하고 절실한 현실 문제가 산적하여 있었다. 당시 조선은 기성의 사회 질서와 통념이 무너지고 있었고, 여기에 더하여 여러 가지 이방의 가치들이 홍수처럼 밀려들어 혼란을 증폭시키고 기존의 학문적 신념마저 흔들리게 만들었다.

이런 시대 상황에 처한 매산은 학자로서 자신의 분야에서 현실을 개

선하기 위해 고심하였고, 자발적으로 여러 가지 시도를 하였다. 이는 현실 정치에 참여하여 그 속에서 기민하게 반응하면서 개혁을 이끌어내는 것과는 달랐다. 그는 학자로서 강학을 통해 후학을 양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禮學과 經學을 정비하여 근간이 흔들리는 儒學을 시대에 맞게 다시 정립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는 유학의 재건을 의미한다.

학문적 작업 외에도, 그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올바른 가치를 제시하고 계도하여, 사회 질서를 안정시키고 시습을 바로잡는 일에도 유념하였다. 그가 작성한 여러 편의 전장과 비지는 이런 고민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자신의 뜻을 구현하기 위해 전장과 비지를 방편으로 활용하면서 外史氏 역할을 자임한 것이다. 한 시대를 살아가는 지식인으로서 자신이 처하고 있는 현재의 역사를 알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는 그는, 현재의 역사에 대응하기 위해 外史氏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의사씨란, 곧 과거와 현재의 역사를 분석하고 그 속에서 결코 잃지 말아야 하는 통시적 가치와 지혜를 발견하여 현재와 미래에 기여하는 역할을 맡는 자이다.

그에 있어서 의사씨의 역할은, 전통적 가치에 따라 人倫과 名節을 실천한 인물 군상들을 발굴하여 기록으로 남겨 세상에 알리는 일로 실현되었다. 이런 이유로 그는 아무리 미천한 자라도 선행을 실천한 자가 있으면, 그 선행을 기록해야겠다고 생각하여 그의 전장과 비지를 써주곤 하였다. 비록 사적인 공간이나 민간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도 미담에 해당하는 것이면, 되도록 기록으로 남겨 역사에 보태고자 하였다. 이는 현실 정치에서 벗어난 산림의 학자로서 매산이 자발적으로 맡을 수 있는 방편적 역할이었다. 민간에서 이루어져 미처 조명 받지 못하였던 아름다운 덕행[潛德]과 훌륭한 행실[幽光]을 새롭게 조명하여 세상에 알림으로써, 인륜과 명절을 진작하고 유학의 권위를 회복시킬 수 있다고 믿고서 곳곳이 실행으로 옮겼다.

일찍이 임헌회는 매산 행장에서 “만일 忠孝와 貞烈이 있으면 혹 傳을 작성하기도 하고, 혹 墓에 銘을 기록하기도 해서 그의 감추어져 드러나

지 않은 아름다운 덕행과 훌륭한 행실을 드러내어 밝혔다.”<sup>1)</sup>이라고 하였다. 매산이 의도를 가지고서 알려지지 않은 타인의 선행을 기록으로 남기고자 했음을 고백한 것이다. 그런데 이는 쇠퇴한 세상에 대한 감회로 인한 것이었다. 쇠퇴한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처방으로, 충효와 정렬의 가치를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그래서 충효와 정렬을 실행한 자라면 누구라도, 기꺼이 비지와 전장을 작성해주었다. 이로써 감추어져 드러나지 않은 아름다운 덕행과 훌륭한 행실을 드러내어 알릴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가 많은 수량의 비지와 전장 기록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이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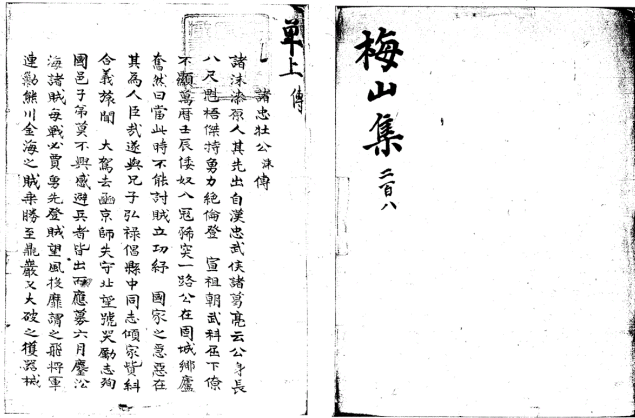
본고는 매산의 작품으로 전해지고 있는 전장과 비지 등의 자료로 활용하여 앞서 언급한 사실들에 관한 사고의 실마리들을 추적하고 분석하고자 하였다. 국가의 위난을 극복하고 사회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한 의도로, 학자에 걸맞은 역할에 충실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19세기 전반 조선의 문학과 사회 현상을 이해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II. 간행본 및 필사본 소재 인물 군상 기록의 현황

먼저 매산이 남긴 전장과 비지의 존재 양상을 소개한다. 매산의 시문 작품은 그의 문집에 실려 전해진다. 현재 전해지고 있는 그의 문집으로는 간행본 『매산집』과 필사본 『매산집』이 있다. 이 가운데 간행본은 한국문집총간에 포함되어 널리 통행되고 있다. 간행본의 저본이 되었던 필사본은 국립중앙도서관(한古朝46-가1088)에 보관되어 있다. 그런데 이 필사본 『매산집』은 不分卷 224책으로 되어 있다. 이 필사본은 미처 卷次

1) 任憲晦, 『鼓山集』 권16, 「梅山洪先生行狀」, “苟有忠孝貞烈, 或立傳、或銘墓, 闡發其潛德幽光.”

를 일정하게 나누지 못한 상태에서 편의에 따라 묶인 것으로 보인다. 동일한 작품이 여러 곳에서 중복되어 실린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이를 짐작할 수 있다. 224책의 각 분량도 300면 남짓에서부터 3,40면에 이르기까지 일정하지 않다.



필사본 『매산집』 권208

필사본 『매산집』 중에서 비지와 전장이 수록된 부분을 대략 소개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1> 필사본 소개 인물 군상의 기록

冊次	수록 내용	冊次	수록 내용
150	墓碑銘, 遺墟記, 行狀, 墓碣銘	195	墓誌, 墓表, 行狀
175	墓碣	196	神道碑銘
176	墓碣	197	墓誌, 議
177	墓碣	198	行狀, 諡狀
178	墓碣, 書	199	行狀, 遺事
179	墓碣, 墓表	200	行狀, 諡狀, 行錄

180	墓碣	201	行狀
181	墓碣	202	諡狀 行狀
182	墓碣	203	行狀
183	墓誌	204	家狀
184	墓誌	206	遺事,傳
185	墓誌	207	行狀,傳,遺事
186	墓誌	208	傳
187	墓誌	209	雜錄
188	墓誌	210	雜誌
189	墓表, 墓誌	211	雜誌
190	墓誌	212	墓誌
191	墓誌	214	墓碣
192	墓誌, 墓碣	216	墓誌銘
193	神道碑銘	217	墓碣銘, 墓誌銘
194	神道碑銘		

필사본에는 매산의 작품을 한차례 교열을 거쳐 가공한 정리본과 각 지역 교유 인물들에게서 최초로 건네받은 1차 수합본이 뒤섞여 있다. 곧 최초로 수합한 작품과 이후 편찬하는 과정에 생산된 전사본이 정리되지 않은 채로 뒤섞여 있어 여러 차례 중복 출현하는 작품이 적지 않다. 위의 자료를 활용하고자 한다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위의 자료를 토대로 하여, 간행본과 필사본에 수록되어 있는 전기 자료의 편수를 문체별로 합산하여 헤아려보면 아래와 같다.

<표1> 매산 창작 전기 자료의 문체별 현황

문체	碑誌類					傳狀類					합계
	神道碑	廟庭遺墟碑	墓碣	墓表	墓誌	諡狀	行狀	遺事	行錄	傳	
편수	22	11	116	12	145	4	49	3	1	41	397

필사본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은 신도비 22편, 묘정유허비 10편, 묘갈 113편, 묘표 12편, 묘지 140편, 시장 4편, 행장 42편, 유사 3편, 행록 1편,

전 141편으로 총 388편이 되고, 간행본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은 신도비 19편, 묘정유허비 7편, 묘갈 40편, 묘표 2편, 묘지 86편, 시장 2편, 행장 33편, 유사 3편, 행록 0편, 전 15편으로 총 207편이 된다.

그런데 필사본과 간행본의 각 편수와 이를 합산한 편수 사이에 간극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묘갈의 경우 필사본에 113편이 있고 간행본에 40편이 있는데, 이를 다시 양쪽에 모두 수록된 작품을 한 편으로 계산하여 합산하면 그 편수가 116편이 된다. 이는 필사본에 없던 3편의 작품이 간행본에 수록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곧 최초로 유고를 수합하여 엮어진 필사본에 미처 수습되지 않았던 여러 편의 작품이 간행본을 편찬하는 사이에 수습되어 편입되었던 것이다.

문체별 수록 작품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는 생략하고 부록에서 소개한다.

### Ⅲ. 外史氏 역할의 자임과 立傳 의식에 관한 분석

매산은 한 시대의 지식인으로서 조선 사회의 안정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책임을 통감하고 外史氏의 역할을 자임하였다. 그 인식의 과정을 추적해보고 실제의 활동 양상에 대해서 살펴본다. 앞서 「매산 홍직필의 儒道 존승과 警世의 시문 창작에 관한 고찰」과 「국역매산집 해제」에서 이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한 바 있는데,<sup>2)</sup> 이를 토대로 구체적 사실들을 보충하여 소개한다.

나의 문하에 八路의 선비가 거의 모두 이른다. 이들에게 보고들은 바를 물으

2) 신영주의 「매산 홍직필의 儒道 존승과 警世의 시문 창작에 관한 고찰」(『한문고전연구』 30, 한국한문고전학회, 2015) 및 「(梅山集 解題) 儒道 존승과 警世의 시문 창작」(『國譯 梅山集』 1, 성신여자대학교 고전연구소·해동경사연구소, 학자원, 2016) 참조.

면, 모두 환곡에 폐해가 있다거나 아전이 포흠을 한다거나 수령이 뇌물죄를 범한다거나 풍속이 투박하다고 말하여 하나도 좋은 소식이 없다. 날로 심해지고 달로 성해질 뿐이다. 세상이 변하여 이 지경이 되었는데, 끝내 어디에까지 이를 것인가.<sup>3)</sup>

이는 鄭鳳元이 매산의 말을 기록한 「어록」의 일부이다. 조선의 당시 세태를 매산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세상이 변하여 나라 곳곳에서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고 풍속이 야박해져서 무엇 하나도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이 없다고 한다. 당시 조선은 관료들에 의한 부패와 광범위한 수탈이 일상처럼 자행되어 터전을 잃은 백성들이 정치 없이 유리결식하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은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더 이상 이런 시국을 두고 볼 수만은 없는 노릇이었다. 세상의 교화가 성하고 쇠하는 것과 국가의 명운이 길고 짧은 것은 모두 유학의 도가 성하느냐 쇠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았던 매산은, 반드시 유학의 도를 회복함으로써 사회의 기강과 풍속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였다.<sup>4)</sup>

그런데 유학의 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시 조선 사회의 기성 가치를 어지럽히고 기강과 질서를 흔들어 결과적으로 유학의 도를 무너뜨리게 만들었던 異端과 流俗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았다. 이 중에서 유속의 문제가 이단으로 간주되고 있던 천주교 문제보다 오히려 현실적으로 더욱 심각한 폐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sup>5)</sup> 유속의 문제를 비판하면서 “성인이 鄉原을 미워한 것이 이 때문이 아닌가. 이 폐해를 고치려면 풍속을 바꾸고 기강을 세우고 名檢을 숭상하고 浮華를 물리쳐야 할 뿐이다.”<sup>6)</sup>라고 역설하였던 이우가 여

3) 洪直弼, 筆寫本 『梅山集』 책221, 「語錄 [鄭鳳元]」, “先生曰, 及吾門者, 幾盡八路之土. 叩其所傳, 則皆曰還弊也、吏逋也、守令之贓污也、風俗之淪薄也無一好消息, 日甚月盛. 世變至此, 而畢竟稅於何地也.”

4) 趙秉憲, 『肅齋集』 권24, 「梅山洪先生墓誌銘」.

5) 신영주, 상계논문, 2015 참조

기에 있다. 유도를 무너뜨린 원인이 유속에 있다면, 이 유속의 문제를 바로잡아야 다시 유도를 바르게 회복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매산은 이 유속을 개선하기 위해 외사씨의 역할에 주목하게 되었다. 그는 外史氏로서 사회 곳곳에서 이루어진 선행의 미담을 적극적으로 기록하여 후세에 남기기를 원하였다. 선행을 발굴하여 알림으로써 유속을 개선할 수 있고, 다시 이로써 유도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그의 오랜 바램이었다. 그가 남긴 기록들을 보면 몇 가지 부분에서 이와 관련한 그의 의도성을 발견하게 된다.

### 1. 忠孝와 烈義의 재조명

매산이 입전한 대상 인물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충효와 열의의 가치를 실천한 인물들이다. 몇 가지 경우를 소개한다. 아래는 「諸忠壯公沫傳」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공은 조금의 세력도 의지하지 않고서 초야에서 몸을 일으키더니, 자신을 돌보지 않고서 忠義로써 분격하여 무예의 무리를 규합해서 위난을 막기로 맹서하였다. …… 자신을 잊고서 순국하여 그 뜻을 이루었다. 어찌 진정한 烈丈夫가 아니겠는가. …… 한 가문에서 세 충신이 나와서 고금에 밝게 빛을 발함으로써 능히 忠武侯의 일을 이었다. 3대가 순국한 이들의 가법이 어찌 아름답지 않은가?<sup>7)</sup>

諸沫(?~1592)은 제갈량의 후손이다. 임진년(1592)에 왜의 침략으로 위난에 빠진 국가를 구하기 위해 초야에서 의병을 일으켜 싸우다가 순국

6) 趙秉憲, 『肅齋集』 권24, 「梅山洪先生墓誌銘」.

7) 洪直弼, 筆寫本 『梅山集』 책208, 「諸忠壯公沫傳」, “公不階尺寸之勢, 挺拔草莽之中, 忠義所激, 奮不顧身, 誓鳩武旅以遏橫潰. …… 忘身殉國, 以遂其志, 豈不誠烈丈夫哉. …… 一門三忠, 炳耀今古, 克紹忠武侯. 三世殉國之家法, 詎不休哉.”

한 인물이다. 조금의 세력도 갖지 못한 처지의 그가 오로지 나라를 걱정하는 충심 하나로 제 몸을 아끼지 않고 의병을 일으켜, 가문에서는 효를 이루고 나라에서는 충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이다. 매산은 그를 烈丈夫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3대에 걸쳐 순국한 이들의 가법을 아름답다는 말로 칭송하였다.

제장군이 수립한 충과 효를 역사상의 큰 공적으로 제시하면서 이를 칭송하고 나선 까닭은 무엇인가? 재야에서 이루어진 역사의 한 부분을 기록함으로써, 이전까지 간과하여 빠뜨리고 있었던 엄연한 역사를 일부를 새롭게 주목하도록 만드는 외사씨의 본디 역할을 다한 것이다. 그러나 그 뿐은 아니다. 제장군의 공적을 역사에 기록한다는 외면의 이유 외에도, 그 내면에 별개의 의도가 있다.

곧 매산은 19세기 전반의 조선 사회에 귀감으로 제시하여 경중을 올릴 수 있는 것이 필요하였다. 제장군의 무용담은 그런 소재의 하나로서 취해진 것이다. 이로써 당면한 현실의 문제를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던 것이다.

彌文은 명성을 얻어 후세에 전해지기를 바란 자가 아니다. 그러나 나는 인멸되어 일궈지지 않을까 걱정되어 그의 사적을 기술한다. 이로써 자식의 본분을 다하지 않는 자들을 경계시킨다.<sup>8)</sup>

「閔孝子傳」에서 매산이 평한 말이다. 閔彌文은 병이 위중해서 사경에 이른 모친을 다시 소생시키기 위해서 斷指를 결행하였던 효자이다. 그 자신은 비록 명성을 구하려는 의도가 없었을 수 있으나, 매산의 입장에서는 그의 행실을 높이 평가하면서 기록으로 남겨야겠다고 생각하였다. 이로써 자식의 본분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경중을 올릴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8) 상계서, 책208, 「閔孝子傳」, “彌文非欲立名以施于後世者, 而余恐湮滅而不稱, 述其事, 風爲人子不盡分者.”

諸公은 스스로 忠義世家의 자손으로서, 늘 자신을 돌보지 않고 분격하여 국가가 위급한 순간에 순절하리라 생각하였다. 그래서 만 번 죽을 곳으로 달려가면서도 한번이라도 살기를 바라지 않고서 환란에 몸을 던져 말을 실천하였다. 어찌 忠壯公을 진정으로 닮은 후손이 아니라. …… 또한 충의는 국가의 元氣이니, 충의의 기운이 왕성하면 국가의 원기가 절로 강성해진다.9)

이는 「贈統制使諸公傳」에 붙인 찬의 일부이다. 諸公은 홍경래의 난이 일어나자 관군을 이끌고 선봉에서 공격하다가 전사한 諸景彧(?~1812)을 이른다. 왜군에 대항하여 공을 세우다가 성주의 전투에서 전사한 忠壯公 諸沫(1567~1593)의 6세손으로서 선대를 이어 충의를 실천하였으므로, 忠義世家란 말로 일컬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매산은 충의가 국가의 元氣이므로, 충의의 기운이 왕성하면 국가의 원기가 절로 강성해진다고 보았는데, 제씨의 경우처럼 순국으로써 충의를 실천한 집안의 사례는 충의의 가치를 알릴 수 있는 좋은 본보기가 되었다. 왜란과 호란의 국가적 위란을 겪었던 역사 경험을 통해 충의의 가치가 국가의 안녕을 지키는 데에 있어 무엇보다 소중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던 바, 외세와 내부의 저항에 흔들리고 있는 19세기의 위급한 현실 상황 속에서 이 가치를 구현한 과거의 역사 경험을 드러내어 알리지 않을 수 없다. 매산은 위국헌신을 실천한 역사 인물들에게서 충의의 가치를 끌어내어 현실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기를 소망하였다.

매산이 전이라는 기록을 통해 이렇게 충, 효, 열, 의의 가치를 드러내어 강조한 것은, 모두 19세기의 쇠퇴한 유속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이다. 이것이 자신의 처지에서 시도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9) 상계서, 책208, 「贈統制使諸公傳」, “贊曰, 諸公自以忠義世家, 常思奮不顧身, 以殉國家之急. 出萬死不顧一生, 赴難而踐言, 豈不誠忠壯肖孫哉. …… 且忠義, 國家之元氣也. 忠義之氣昌, 則國家之元氣自固. 聖朝所以表旌而崇報者, 爲國家萬世計, 詎不休哉.”

이런 정황은 「孝子李龍大傳」에서 “나는 이에 立傳하여 이로써 아버지의 일을 공경히 따르지 않아서 그 마음을 크게 상하게 하는 자식들을 경계시킨다.”<sup>10)</sup>라고 말한 것에서도 엿볼 수 있다. 李龍大는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부친을 위해 담당 관리에게 간곡하게 하소연해보았으나, 아무리 해도 받아들이지 않자 上帝를 만나 하소연하겠다고 하며 깊은 골짜기에 들어가 나무 끝에 목을 매달아 자진한 인물이다. 자못 극단적 방법으로 효를 실천한 경우로서 과연 올바른 행동이냐에 대해서는 시시비비가 있었던 듯하다. 그럼에도 매산은 그의 행동에 주목하였다. 그의 극단적인 행실이 도리어 강렬한 인상을 남겨 19세기 전반의 절박한 위기 상황에 경종을 울릴 수 있다고 보았다. 이렇게 하여 자연스럽게 당시의 유속을 개선할 수 있다고 믿었다.

## 2. 禮失求野, 하층의 미담 발굴

매산이 관심을 두고 알리고자 한 대상 중에는 하층의 인물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은 아니었다. 매산은 하층의 존재가 국가를 유지하고 사회를 안정시키는 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이들을 교육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각별하게 관심을 기울였던 것이다.

내가 지난 역사를 읽어보니, 국난에 처하여 忠을 떨치고 仁을 이루고 義를 취한 선비는 명문세가의 자손이거나 지위가 높거나 재산이 많은 자가 아니었다. 대부분 한미하게 농사를 짓거나 외로운 집안이 아니면 낙척하고 불우한 자들로서 임금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도 못하는 부류에 드는 자들이었다. 대개 육식을 즐기는 부귀한 자들의 경우에는 이미 자신의 지위에 깊이 마음을 뺏기고 젖어들어, 혹 이 지위를 잃지 않을까 걱정할 뿐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태도를 바꾸

10) 상계서, 책208, 「孝子李龍大傳」, “余爲之立傳, 用警不祇服厥父事大傷厥考心者.”

거나 평소의 소신을 굽혀서 부끄럽게 행동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 하지만 소원한 처지에 있는 자들의 경우에는 세속에서 즐기는 기호에는 욕심을 두지 않고서 자신이 좋아하는 바를 추구할 뿐이다. 이 때문에 이런 자들 중에서 이따금 시속에 맞추어 오르내리지 않고서 평소 소신을 온전하게 지키는 자들이 나오는 것이다. 이들은 환란의 때에 처해서는 목숨을 바쳐서 백이면 백이 기필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곳으로 달려가면서도 후회하지 않는다.<sup>11)</sup>

위의 인용문은 諸景彘의 고사를 기록한 것이다. 여기에서 매산은, 그 사이에 기득권을 독점하여 사회적 지위를 마음껏 누리왔던 명문세가의 자손이나 부귀한 자들이, 정작 나라가 위난에 빠져 있을 때에는 국가를 저버리고 있다고 고발하고 있다. 그 사이 지위를 마음껏 누린 것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마음에 두지 않고서, 사욕에 젖어들어 오로지 자신의 지위를 잃을까 걱정할 뿐이었던 것이다. 자신의 목숨을 지키고 사사로운 권세와 이익을 붙잡기 위해서라면 평소에 보여주던 소신을 굽히고 태도를 일변해서라도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기득권에서 소외되어 한미한 처지로 농사짓거나 세력이 없는 가문에서 성장하여 낙척하고 불우한 삶을 피할 수 없었던 자들이, 자신이 평소에 추구하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죽음을 불사하는 것이 현실이었다. 그래서 평소의 소신을 온전하게 지켜 국가의 위난을 극복하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후회 없이 달려 나갔던 자들이 대부분 낙척하고 불우한 자들 중에서 나왔던 것이다. 매산이 이들의 선행을 기록하여 후대에 알리고자 앞장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래의 인용문은 영월의 상동면 백성이 청령포에 유폐된 단종에게 절의를 지키고자 한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11) 상계서, 책208, 「贈統制使諸公傳」, “余嘗讀往史, 見臨亂奮忠成仁取義之士, 不出於名門世胄位高金多之人. 而舉皆是寒畯孤族落拓不遇, 人主所不知何狀之類. 蓋其酣參富貴者, 迷溺膠固, 猶恐其或失, 故不厭其回面汗行. 若至疎遠之人, 淡於世味, 從吾所好, 往往不隨俗浮沉與時俯仰, 以全其素守. 當患難捐軀命, 之百死而靡悔焉.”

天德山人은 말한다. 군신 사이의 義는 천성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친소와 귀천에 따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다. 이에 어떤 野人이 등을 비취주는 햇볕을 상쾌하다고 여기고 미나리를 맛이 있다고 여겨 임금에게 진헌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비록 시골에 있어도 오히려 임금을 잊지 않았으니, 진실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는 義가 있다.”라고 평하였다. 예로부터 순절한 선비는 세가의 자손이나 별열 가문에서 나오지 않았고, 반드시 궁벽한 초야에서 사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 중에서 나왔다. 인성의 선함이 어찌 世類에 달려 있는 것이겠는가? …… 충심이 가을 서리보다 강렬하고 정신이 하늘의 해를 꿰뚫어 밝은 풍속을 일으키고 야박해진 습속을 면려시킬 수 있다. 아 아름답지 않은가.<sup>12)</sup>

청령포에 유폐된 단종을 위해서 절의를 지킨 상동면 백성의 선행을 기록하면서 언급한 내용이다. 天德山人은 매산을 이른다. 군신 사이의 義는 천성처럼 회피할 수 없고, 지위나 처지에 따라 그 정도가 달라질 수도 없다. 그런데 지금까지 순절을 행한 자는 세가의 자손이나 별열 가문이 아니라 반드시 궁벽한 초야에 사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었다고 한다.

절의가 반드시 귀천과 친소에 따라 지켜지는 것은 아니며, 도리어 초야에서 이름 없이 지내고 있는 한미하고 고립된 가문 출신이나 낙척하고 불우한 인물들에게서 실천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매산은 이들의 충심과 정신을 알려 밝은 풍속을 일으키고 야박해지 습속을 면려시킬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하루는 錫麟이 어린 종에게 오이를 사오게 하였다. 어린 종이 저자로 가는데 길 곁에 주인 없는 전대가 있어서 살펴보니 엽전 수십 켤미가 있었다. 어린 종은 결국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전대를 지키고 있었는데 날이 어두워지도록 전대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자 어린 종이 울음을 터트리고 말았다. 이에 길 가던 사람이 “어찌 우느냐?”고 묻자 어린 종이 말하기를, “내가 이 전대를 지키고 있었는데 전대의 주인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전대를 내버려두고 갈 수가

12) 洪直彌, 『梅山集』 권51, 「上東民傳」.

없어서 오이를 사지 못하여 읍니다.”라고 하였다. …… 崔天翼은 興海의 吏族이다. 문장에 능하고 석린과 친하였다. 석린이 죽자 시로써 애도하기를, “마을의 어린 중도 선생의 義에 감화되었고, 산의 도적도 오히려 處士의 이름을 알았다네.”라고 하였다. 이는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나는 일찍이 著菴 俞公에게 이 일을 매우 자세하게 들었다. 이제 이를 추술하여 전을 지어 말과 행실이 서로 모순되는 자들을 경계시킨다.<sup>13)</sup>

어린 중이 감화를 받아 남의 물건을 탐하지 않고 개결한 마음을 지켰을 정도로, 徐錫麟은 스스로 義를 실천하였을 뿐 아니라 주변 인물들에게 영향을 끼쳐 풍속을 변화시키는 데에 일조하여 세상에 알려진 인물이다. 매산은 이 이야기를 일찍이 俞漢雋에게 전해 들었다가 시간이 흐른 뒤에 전으로 기록하여, 이로써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유속의 행태를 바로잡기를 기대한 것이다.

梅山居士는 말한다. 崔烈婦가 위향에서 성장하면서 평소 姆氏의 가르침을 듣지 못하였다. 또한 詩書의 文을 배우거나 예교를 익힌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그녀가 담담하게 義를 실천한 것은 위선을 행한 것이 아니니, 비록 명문세가 해도 따라하지 못할 것이다. 그녀의 정렬은 천성에서 나왔고 낮고 미천한 곳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더욱 귀하다.<sup>14)</sup>

위의 인용문은 위향에서 성장한 崔烈婦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녀는 비록 사대부가의 자녀처럼 시문과 예교를 익힌 자는 아니었으나, 명문세가라고 해도 쉽게 행할 수 없는 순수한 義를 실행한 주인공이었다. 그녀의 이런 행동은 왜곡된 사회적 압박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의 판단과 각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더욱 값진 것이었다. 이에

13) 상계서, 권51, 「進士徐錫麟傳」.

14) 洪直弼, 筆寫本『梅山集』 책208, 「崔烈婦傳」, “梅山居士曰 烈婦生長委巷, 非素聞姆氏之誡者. 且非嫻於詩書之文, 而服習禮教者也. 顧其從容取義, 靡所矯激者, 雖名閥右族, 亦有所不逮. 卽其貞烈, 根於天性, 而出於卑微者, 尤可貴焉.”

매산은 신분 질서가 흔들리고 여성과 하층의 백성들이 조금씩 사회적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하던 당시에, 貞烈의 가치를 자발적으로 실천한 崔烈婦의 행동을 드러내어 조선 사회에 깊은 울림을 남길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녀는 거처하면서 구차히 영합하지 않고 움직이면서 법도를 어기지 않았으며, 절조를 지켜 굴복하지 않고 위난을 당해서도 더럽히지 않았으니 진정한 열녀다. 어찌 詩禮를 외고 본받는 女士보다 어질지 않으랴. …… 瓊春은 下문의 賤籍에 속한 자로서 이제 겨우 비녀를 꽂을 나이를 넘겼을 뿐이다. 일찍이 염치를 기르거나 예교를 배운 적도 없었는데 마침내 信과 貞을 지켜서 스스로 수립할 수 있었다. 사람이 천지의 中을 받아서 태어나는 것은 고급과 존비의 차이가 없음을 여기에서 더욱 분명히 볼 수 있다.<sup>15)</sup>

이는 영월의 기녀 瓊春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녀가 知府 李萬恢에게 마음을 준 이후로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 마침내 죽음을 불사한 것에 주목하였다. 사회 약자에 해당하는 기녀의 처지에서 자신의 절의를 지키는 것은 쉽지 않았던 시절이었다. 여러 방식으로 이어지는 외압과 위협을 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그녀는 엄혹한 현실을 더 이상 견뎌낼 길이 보이지 않아, 결국 자진으로써 자신의 뜻을 지킬 수밖에 없었다. 매산은 그녀가 단종의 궁인들이 몸을 던졌다는 彰烈巖에서 몸을 던진 사실에서, 영월 지역의 유속에 절의의 전통이 면면히 전해지고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널리 알리고자 하였다.

‘나물 파는 노파’는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 기사년(1689)에 仁顯聖母가 巽位하고서 安國坊의 私第에 머물고 있을 때에 일상 물품의 공급이 끊겨 이를 마련하기가 몹시 어려웠다. 그런데 매일 밤에 몇 묶음의 채소를 廢宮의 담장 안으로 던져 넣는 자가 있었다. 거의 하루도 이를 거르지 않았다. 이웃 사람이 우연히 보았는데, 바로 왕십리에서 나물을 파는 노파였다. 다른 날에 엿보아도 여전히

15) 洪直弼, 『梅山集』 권51, 「妓瓊春傳」.

그렇게 남몰래 하였고, 갑술년(1694)에 복위한 후에도 자신의 공을 자랑하지 않았다. …… 이 노파는 생전에 聖母의 얼굴도 몰랐으나 氣義에 감화되어 스스로 정성을 다 바친 것이었다. 그런데 복위한 후에 전혀 세상에 나타나지 않고서 자취를 감추었으니, 보답을 바라지 않고서 은혜를 베푼 것이다. …… 이러한 사람은 혹 옛 烈俠을 사모하여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고, 자신의 덕을 자랑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자인가. 전혀 보답을 바라지 않고, 단지 천리에 당연한 것이므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sup>16)</sup>

이는 나물 파는 노파에 관한 이야기이다. 폐위되어 안국동 사저에 머물고 있던 인현왕후는 평소에 제공되던 물품을 더 이상을 제공받지 못하였기에, 아마도 음식에 사용할 식품도 쉽게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때에 왕십리에서 채소를 팔던 노파가 남모르게 매일 같이 사저의 담장 안으로 채소 몇 묶음을 던져 넣었던 것이다. 노파의 행동은 전혀 보답을 바란 것이 아니었다. 왕후가 복위된 이후에도 자신을 존재를 감추고서 공을 삼지 않았다는 것에서 이를 엿볼 수 있다. 노파의 행동은 영월에서 단종을 위해 절의를 지켰던 上同民의 행동과 함께 일컬어졌는데, 교육받지 않은 하층에서 도리어 보답을 바라지 않고서 순수한 마음으로 충의를 실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3. 海西와 關西 지역에 대한 관심

매산이 기록하고 있는 대상 중에서 해서와 관서 지역에서 활동하던 인물이 적지 않게 발견된다는 점이 주목된다. 아래에 몇 가지 자료를 소개한다.

16) 洪直弼, 筆寫本『梅山集』책208, 「賣菜嫗傳」, “賣菜嫗者, 不知何許人. 己巳仁顯聖母巽位, 處安國坊私第. 是時廢常供, 供給孔艱, 每夜中有投數束蔬於廢宮牆內者, 幾無一日闕. 隣人偶然目擊, 則乃往十里賣菜之老婆也. 他日覘猶然. 甲戌復位後, 亦無自銜者. …… 斯嫗生不識聖母之面, 而氣義攸感, 自盡惻誠. 逮光復而不少槩見, 泯然無跡, 是乃施恩於不報之地者也. …… 若人也, 或慕古烈俠不矜其能, 羞伐其德者歟. 報施都忘於心, 只是天理當然, 吾不得不然耳.”

關北은 지대가 두텁고 물이 깊은 곳이어서 그 지역 사람들이 서로 氣義를 숭상할 뿐 아니라, 국가에서 배양하여 교화가 이루어진 것도 벌써 오백 년이나 되었다. 그렇다면 명절을 지키는 무리가 그 곳에서 출현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忠·孝·烈을 이곳 한 가문에서 모두 성취하였으니, 또한 얼마나 성대한 일인가?<sup>17)</sup>

관북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洪氏의 가문에서 특히 孝烈로써 명성을 떨친 세 사람에게 관한 이야기이다. 관북은 지대가 높고 골이 깊은 지형의 특성으로 인해 지역 사람들에게 氣義를 숭상하는 풍조가 이미 형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사이 5백 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는 동안 꾸준하게 국가의 교화가 이곳에 이루어졌다고 한다. 이로 인해 명절을 지키려는 자들이 이곳에서 나타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이다. 洪氏 가문의 세 사람은 洪汝滉과 그의 증손 洪夏任과 洪夏任의 孫婦 朴氏이다. 洪汝滉과 洪夏任은 효를 실천한 자로 소개되어 있고, 朴氏는 烈을 실천한 자로 소개되어 있다.

관서 한 지역은 강산이 수려하고 인물이 많은 곳이어서, 진실로 우리 동방의 冀州라 할 것입니다. 夏와 周의 시기부터 이미, 고조선이 玉帛을 들고 가서 塗山의 회합에 참여한 바 있고 기자의 백성들이 涇水를 河水에 견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에는 九井의 제도가 남아 있고 사람들에게는 八條의 가르침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본조의 문명을 열 수 있었으니, 진실로 다른 지역에서 미칠 수 있는 바는 아닙니다.<sup>18)</sup>

이는 매산이 갑자년(1804) 정월에 白慶楷(1765~1842)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이다. 강산이 수려하고 인재가 많이 배출되는 관서 지역은, 이미 삼대 시기부터 중국과 교류가 이루어져 九井의 제도와 八條의 가르침이

17) 상계서, 책208, 「洪氏三世孝烈傳」, “關之北, 土厚水深, 其人以氣義相尙, 而國家培養, 化成五百年於斯, 名節之輩出固也. 然忠孝烈, 萃於一門, 又何其盛也.”

18) 洪直弼, 『梅山集』 권17 「答白聖益慶楷○甲子元月」.

시행되고 전해지는 곳이라고 하면서 각별한 관심을 드러내었다. 아울러 관서 지역의 이런 부분은 다른 지역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특수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이 관서 지역에 대해 매산이 각별하게 기대와 애정을 품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기대란, 풍속이 무너진 작금의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을, 아직 삼대의 유풍이 전해지고 있을 이 관서 지역에서 찾고자 한 것이었다. 위 편지의 말미에서, 비록 현재는 이 지역의 風聲과 習氣가 비속해진 까닭에 빼어난 인재들마저 記誦과 雕篆으로 출세할 생각뿐이라고 안타까워하는 심사를 드러내었는데, 이는 기대와 애정에서 비롯된 탄식이었다.

이 관서 지역에서는 일찍이 遯庵 鮮于湊(1588~1653)이 金台佐(1541~?)의 문하에서 나와서 올바른 학문을 창도하여 關西夫子로 일컬어진 바 있다. 이로부터 비로소 관서 사람들이 성리의 설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이후 선우협의 뒤를 이어서 등장한 井田 康達(1714~1798)는 자품이 호걸스러운 자이다. 그는 李緯의 문하에서 힘을 다해서 수학하였고 경제제민의 재주까지 겸비하고 있어, 세상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었다. 이에 매산은 道內에 통문을 보내어 비용을 각출해서 선우협외의 奎書를 중간하고 姜규의 遺編을 간행하여 세상에 전함으로써 풍속을 장려할 것을 白慶楷에게 권하기도 하였다.

鄭奎元(1818~1877)은 「師門遺稿 語錄」에서 관서 사람인 執菴 黃順承이 배움에 힘쓰고 행실을 삼가서 도적이 그에게 감동하는 결과로 이어지기까지 하였다고 하면서, “학문을 하여 얻는 힘은 진실로 풍토에 국한되지 않는다.”<sup>19)</sup>라고 강조한 바 있는데, 매산도 이 관서 사람들의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이들의 성취와 선행을 직접 나서서 알리고자 했던 것이다.

19) 洪直弼, 筆寫本『梅山集』책221, 「師門遺稿 語錄[鄭奎元의 기록]」, “黃執菴順承, 卽關西人, 而力學飭行, 至於盜者亦感化. 學問之力, 固不風土局之也.”

우리 조정의 문교가 성대하게 밝혀지고 儒賢들이 배출되면서 서북 지역에서 도 호걸들이 이따금 그 기풍을 듣고서 흥기하였다. 관서에 거주하는 遯庵 鮮于 浹이라는 자가 있고 관북에 거주하는 松巖 李載亨이라는 자가 있는데, 尤齋와 羨湖 두 선생이 혹 이들의 묘지명을 작성하기도 하고 혹 이들의 행장을 작성하기도 하여, 이로써 이들의 감추어져 있는 아름다운 덕행을 드러내주었다. 그런데 내가 듣기로는, 海西의 思齋 張公이 두 공보다 먼저 흥기하였었다. 연원을 따라서 배운 것은 아니었으나 자신의 마음을 따라 자득해서, 斯文을 유지하고 후학을 계도하는 것으로써 자신의 임무로 삼았다. 그렇다면 이 역시 호걸한 사람인데 두 선생에게 表章을 받지 못하여 이름이 인멸되어 알려지지 못하였다. 애석하다.<sup>20)</sup>

이는 思齋 張可順(1493~1549)의 묘지에 기록하기 위해 갑진년(1844)에 작성한 글이다.

장가순은 해서에서 참봉 張裕의 아들로 태어난 인물로 자는 子順이다. 徐敬德과 교유하고 주자학을 공부하여 이름을 알렸고, 이를 계기로 명종 때에 건원릉 참봉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그는 철리를 논한 『人事尋緒目』을 남겼는데, 숙종이 그 성취를 인정하여 1689년에 그를 호조정랑에 추증하였다. 또한 그가 남긴 『思齋言行錄』을 통해 그의 삶과 학문 세계를 엿볼 수 있다.

매산은 관서 지역의 인재로 꼽히는 선우협과 강규의 저술을 공간하여 이들의 존재를 알림으로써 이 지역의 풍속을 장려하고자 적극적으로 앞장섰다. 역시 같은 이유로, 아직은 이름이 널리 알려지지 못하였으나 해서 지역에서 인물로 꼽히고 있던 장가순의 남다른 성취를 드러내어 알리고자 한 것이었다.

그가 관서와 관북, 그리고 해서 지역의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쇠퇴하고 변질된 이 지역의 풍속을 개선하기 위한 시도이기도 하였다. 이는 단지 이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당시 조선 사회가 거국적으로 겪고 있었던 당면한 문제였지만, 다만 매산

20) 洪直弼, 『梅山集』 권39 「思齋張公墓誌銘并序○甲辰」.

의 경우에는 이들 지역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였기에 특별히 이 지역에서 풍속을 개선하고자 노력한 것일 뿐이다.

선비들이 추구하는 바가 올바르지 못하여 과거와 벼슬길이 있는 줄만 알 뿐 이오 학문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합니다. 이는 말세의 일반적인 병통인데 관서 지역이 특히 심합니다. 부디 善과 利의 차이를 밝히고 속히 廓淸하는 공을 시행하여 内外와 賓主를 구별하게 하여 풍속이 수립될 수 있게 하시기를, 고명에게 바랍니다.<sup>21)</sup>

이는 매산이 갑오년(1834) 6월에 徐重瑞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이다. 관서 지역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참봉 徐重瑞에게 풍속을 바로잡는 일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람들이 과거와 벼슬길에 마음을 빼앗겨 진정한 학문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말세의 일반적인 병통이지만, 특히 관서 지역이 심하다고 하면서, 부디 善과 利의 차이를 밝히고 内外와 賓主를 구별하여 풍속을 개선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매산은 또한 이 지역에서 관리로 있던 金城甫에게도 “집사 같은 大雅君子가 이 지역의 관리가 되었으니, 어찌 크게 변화할 방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sup>22)</sup>라고 하면서 풍속을 바로 잡는 데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였다. 관서 지역이 처음에 기자에 의해 仁賢의 교화를 받았던 곳이었으나, 지금은 그 풍속이 퇴색하여 선비들이 자중하지 못하고 儒者의 학문이 있는 줄도 모른다고 탄식하면서, 井田의 문집을 간행하는 일로써 풍속을 진작시키는 계기로 삼는 것이 좋겠다고 주장하였다.

21) 상계서, 권17, 「答徐參奉重瑞○甲午六月」.

22) 상계서, 권12 「與金城甫○丙寅五月」.

## IV. 맺음말

매산이 학술과 유속의 개선을 위해 시도한 여러 작업들은, 현실의 문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바로잡으려는 구체적 실천 방법에 대한 고민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는 현재의 역사로서 時事에 주목한 그의 역사 인식과 무관하지 않다. “예전에 農巖께서는 학자가 朝紙를 보려 하는 것을 질책하셨으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 朝紙는 곧 본조의 역사이다. 異代의 역사도 오히려 읽을 것인데, 본조의 역사를 더욱 알지 않으면 안 된다.”<sup>23)</sup>라고 역설했던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자리에서는 “士가 쇠퇴한 말세의 세상에 살 때에는, 타인의 장단점과 時政의 득실을 의론하지 않는다. 이것이 安身하고 立命하는 방법이다.”<sup>24)</sup>라고 하여 時政의 득실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당시를 쇠퇴한 말세의 시대로 보았고 이러한 때에 함부로 정사를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 것이다. 일면 서로 모순되어 보이기도 하지만, 이는 그의 대응 방식이 두 갈래로 나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자신이 재야의 학자로 있으면서 현재의 위기 상황을 현실 정치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이보다는 자신의 처지에 맞게 시속을 계도하고 개선하는 학자적 방식을 취하는 쪽을 취하였다.

그런데 그가 시속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여항인은 물론하고 하층의 노비와 기녀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그가 기록한 전장과 비지에 이들은 주체적 인물로 등장하곤 한다. 아울러 해서와 관서 등의 북방 지역에서 활동하던 많은 인물들이 그의

23) 任憲晦, 『鼓山集』 권19, 「梅山先生語錄」, “一日, 朝紙適來, 先生覽訖, 命小子觀之曰, ‘昔農巖, 雖責學者之欲看朝紙, 而恐不然. 此便是本朝史也. 異代猶且讀之, 本朝史, 尤不可不知也.’”

24) 상계서, 권19, 「梅山先生語錄」, “士生衰末, 不議論人長短及時政得失, 是爲安身立命法.”

기록에 등장한다는 점도 흥미롭다. 이는 그가 노주 오희상의 영향을 받았던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sup>25)</sup> 평소에 북방 지역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였던 오희상은 이 지역의 풍기가 다른 곳에 비해 적게 훼손되어서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었다.<sup>26)</sup> 이런 까닭에 노주는 이 지역 학생들을 문하에 받아들여 교육하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것이다. 노주의 영향을 깊이 받아 그 문하에 자주 출입하던 매산은 자연스럽게 이 북방 지역 인사들과 친숙해질 수 있었고 이들을 기록으로 남길 기회가 많아질 수도 있었다.

---

25) 洪直弼, 筆寫本 『梅山集』 책189, 「韓君有觀墓誌銘[癸巳]」, “余嘗從老洲吳先生, 觀禮于崧陽, 譽髦聽講, 升降揖讓, 濟濟有中矩之象, 心異之. 後崧士多及老洲之門, 先生每言闕八路學子, 而惟崧生不失儒素樣子, 眞可教.”

26) 吳熙常, 『老州集』 권9, 「與李性老」.

<參考 文獻>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吳熙常, 『老州集』(한국문집총간 280집)

任憲晦, 『鼓山集』(한국문집총간 314집)

趙秉憲, 『肅齋集』(한국문집총간 311집)

洪直弼, 筆寫本 『梅山集』, 국립중앙도서관(한46-가1088)

洪直弼, 『梅山集』(한국문집총간 295~296집)

신영주, 「매산 홍직필의 儒道 존승과 警世의 시문 창작에 관한 고찰」, 『한문고전 연구』 30, 한국한문고전학회, 2015.

\_\_\_\_\_, 「(梅山集 解題) 儒道 존승과 警世의 시문 창작」, 『國譯 梅山集』 1, 성신 여자대학교 고전연구소·해동경사연구소, 학자원, 2016.

## Abstract

*Maesan Hong Jik-pil(梅山 洪直彌)'s role as a 外史氏 and his record of various characters / Shin Young-ju\**

Maesan Hong Jik-pil(梅山 洪直彌) has created a large number of 傳狀 and 碑誌. This study was done to examine the appearance of these works after examining the aspects of these works. As a scholar living in an era, he correctly understood and responded to the world history of the present day, thereby striving to improve the reality properly. In the first half of the nineteenth century, when 梅山 lived, the situation of the time was not the same as any other age. So he thought it was a pressing and urgent task to prepare a remedy to heal a degenerate age. He thought at this time that informing 忠孝 and 貞烈 could be a way to heal the end times. Therefore, He actively introduced the people who practiced 忠孝 and 貞烈 to make the world known. Even if they are low-ranking people, He was always happy to write these 傳狀 and 碑誌. He informs the world of the unseen beautiful virtues and the good works concealed, tried to make this an example of the world. Because of this, he was able to leave large quantities of 傳狀 and 碑誌. In this study, reviewed these records made by 梅山 and tracked the intention of creation. In particular, in order to overcome the crisis of the country and establish the discipline of society rightly, It was noticed that he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task of identifying and informing people who could be regarded as an example. Through this, I tried to contribute to understanding the literature and social phenomenon of Joseon in the first half of the nineteenth century.

【Key words】 Maesan Hong Jik-pil(梅山 洪直彌), Biography(傳狀), Words on a tombstone(碑誌), Loyalty and filial piety(忠孝), Righteousness(貞烈)

투고일 : 5월 10일, 심사완료일 : 6월 4일, 게재확정일 : 6월 7일

\* Sungshin University, Professor / syj@sungshin.ac.kr